

나보다 나은 사람 혹은 못한 사람은 나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가? :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장 은 영*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자신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한 사람이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알아보았다. 또한 집합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은 자기향상동기가 더 우세하고, 개인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은 자기고양동기가 더 우세하다는 점에 기초하여, 문화차이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성공/실패 경험)×2(상향비교/하향비교)×2(비교횟수가 많음/적음)의 설계로 이 변인들이 전반적 자기평가에 미치는 효과를 한국대학생과 미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알아보았다.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얻은 결과를 보면, 이들은 성공하였거나 실패하였거나에 상관없이 상향비교하면 자기평가가 중간 정도로 유지되었다. 반면에 성공하였을 때보다 실패하였을 때 하향비교하면 자기평가가 더 낮았다. 또한 성공하고 나서 상향비교하면 비교횟수가 많을 때 자기평가가 더 낮았으며, 실패하고 나서 하향비교하면 비교횟수가 많을 때 자기평가가 더 낮았다.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얻은 결과를 보면, 이들은 하향비교할 때에는 비교횟수에 따라 전반적 자기평가가 달라지지 않았으나, 상향비교할 때에는 비교횟수가 많을수록 자기평가가 더 높았다. 또한 실패하고 나서 상향비교하면 비교횟수가 많을 때 전반적 자기평가가 더 높았다. 이상에서 얻은 결과를 사회비교가 자기평가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는 선행연구들과 연결하여 논의하고, 제한점을 언급하였다.

주요어 : 사회비교, 자기평가, 상향비교, 하향비교, 인지적 관점, 동기적 관점, 사회비교동기, 문화 차이

사회비교가 자기평가에 미치는 효과

사회비교가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사회비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이다. 간단히 생각한다면, 상향비교는 자기평가를 낮추고 하향비교는 자기평가를 높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비교의 방향과 자기평가의 관계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자기평가에 사회비교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들

에서는 동화 및 대비효과로 결과를 설명하기도 한다 (Herr, 1986; Kruglanski & Mayseless, 1990; Mussweiler, Ruter, & Epstude, 2004; Mussweiler & Strack, 1999, 2000; Pelham & Wachsmuth, 1995; Stapel & Blanton, 2004). 예를 들어서 상향비교가 자기평가를 높이거나 하향비교가 자기평가를 낮춘다면 이는 동화를 일으킨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상향비교가 자기평가를 낮추거나

* 교신저자 : 장은영, (110-745)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번지 성균관대학교 수선관 7층 응용심리연구소, 전화 : 02) 760-1280, E-mail : jangmean@hanmail.net

하향비교가 자기평가를 높인다면 이는 대비를 일으킨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비교와 자기평가를 알아본 연구들이 모두 동화나 대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연구들이 동화와 대비효과가 작동하는 조건을 알아내고자 시도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화나 대비가 일어나는 조건을 인지적 과정과 동기적 과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자.

동기적 관점

이 관점에서 현재까지 가장 관심을 두고 다루어진 동기는 자존심을 방어하거나 회복시키려는 동기이다. 즉, 자존심을 방어하고 싶은 동기가 높을수록 자신이 상향 비교대상과 더욱 유사하다고 지각하여 동화가 일어나고 하향비교대상과는 더욱 다르다고 지각하여 대비가 일어난다고 간주한다. 예를 들어 Schwinghammer, Stapel, & Blanton(2006)의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지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특성들이 활성화되도록 조작하였는데, 부정적인 특성들이 활성화되면 자존심을 방어하려는 정보처리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므로 이 조건에서 타인과 비교하고 나서 자기평가가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았다. 실제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특성이 활성화된 조건보다 부정적인 특성들이 활성화된 조건에서 자기평가가 오히려 더 높았다.

동기적 과정을 작동시키는 또 다른 변인으로 자신과 비교대상의 관계도 연구되었다. 비교 대상과 자신과의 관계는 주로 자신이 비교대상처럼 될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도달가능성, 자신과 비교대상이 가깝거나 친밀하다고 지각한 정도 혹은 동일한 집단에 속했는지 여부 등으로 조작되었다. 먼저 Lockwood와 Kunda(1997)의 연구에서는 비록 상향비교하더라도 자신이 상향비교대상의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조건에서는 낮은 조건보다 자기평가가 더 높았다. 즉, 도달가능성이 높다면, 상향비교는 자기평가를 낮추지 않고 오히려 높게 된다. Brown, Novick, Lord 및 Richards(1992)의 연구에서는 자신보다 외모가 매력적인 여성의 사진을 보더라도 그 여성이 자신과 생일이 동일하다면 동일하지 않은 경우보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더 높았다. Mussweiler와 Bodenhausen(2002)에서는 상향비교 조건만을 다루었는데, 상향비교대상이 외집단 성원일 때보다 내집단 성원일 때 자기평가가

더 높았다. 따라서 상향비교 대상과 특성을 공유하여 심리적으로 가까움을 지각하거나 비교대상이 내집단 성원이라면 상향비교는 자기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지적 관점

동기적 과정에 더해 인지적 과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되어 왔다. 이 관점은 현재 처리하는 내용과 관련된 지식을 자신이 얼마나 지니고 있는지, 비교대상이 지닌 특성이 얼마나 우월한지, 비교하는 개인의 인지적 자원이 어느 정도인지 등의 같은 요소들로 동화나 대비가 일어나는 조건을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예를 들어 Mussweiler와 Strack(2000), Stapel과 Koomen(2001) 그리고 Mussweiler(2001, 2003)의 연구에서는 선택적 접근 가능성 모형(Selective Accessibility Model)을 제안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다루었다. 이들에 의하면, 비교대상과 자신의 유사성을 검증하려는 과정이 활성화되면 동화효과가 나타난다. 반면에 차이점을 검증하려는 과정이 활성화되면 대비효과가 나타난다. 연구들을 통해 얻은 결과로 보면, 단순한 상향비교 혹은 하향비교 조건이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당사자가 비교대상과 자신의 유사점에 초점을 두느냐 혹은 차이점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동화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대비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처리의 초점에 더해 어떤 변인들은 그 자체로 인지적 과정을 통해서 동화나 대비를 일으키기도 하였는데, 비교가 이루어지는 특성에서 비교대상의 위치가 덜 극단적일수록 동화가 일어나고, 극단적일수록 대비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Stapel과 Blanton(2004) 그리고 Mussweiler 등(2004)의 연구에서는 상향비교대상이 우월한 정도가 극단적일수록 그렇지 않을 때보다 자기평가가 더 낮았다. 또한 자신과 비교대상을 비교하는 차원이 중요하거나(Stapel & Marx, 2007) 비교차원과 비교대상이 지닌 우월한 특성이 서로 관련될수록(Trampe, Stapel, & Siero, 2007) 대비가 활성화되어서, 상향비교하면 자기평가가 낮아지는 점을 보인 연구들이 있다. 이에 더해 정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부담의 효과가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Stapel과 Marx(2006)은 인지적으로 부하가 높은 경우에는 자신과 비교대상이

유사할수록 동화가 일어나지만, 인지적으로 부하가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비가 일어나는 점을 보였다. 이 연구들을 보면, 다양한 변인들에 의해 정보처리의 정교화 수준이 달라지며, 정교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대비효과가 발생한다. 대비효과가 발생하면 상향비교대상은 자기평가를 낮추었고, 하향비교는 자기평가를 높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비교대상 자체는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지적 과정이나 동기적 과정이 작동하여 그 영향력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동기적 과정과 인지적 과정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공 및 실패 경험과 비교횟수를 조작하고자 한다. 먼저, 자존심을 방어하거나 회복시키고 싶은 동기가 강하게 혹은 약하게 작동하도록 하여, 이에 의해서 비교대상과의 동화나 대비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려 하였고, 이 동기적 과정이 작동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성공과 실패 경험을 조작하였다. 또한 인지적 관점에서, 비교횟수에 따라서 정보처리의 정교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고 보았다. 즉, 비교횟수는 정보처리의 정교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비교대상이 자기평가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한다고 예상하였다.

다만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자존심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비교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이나 비교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나 익숙한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면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을 보고 위안을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을 보고 희망과 포부를 얻기도 한다. 이에 더해 과거에 비교 경험이 많아서 비교에 익숙한 사람도 있고, 현재 자신의 상황이 모호하고 혼란스러워서 비교에 관심이 많아진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최근에는 개인이 속한 문화에 따라서도 비교성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제 문화에 따라서 비교를 추구하는 정도나 비교결과에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점을 다른 연구들을 살펴보자.

문화에 따른 사회비교

심리학의 영역에서 문화간 차이를 알아보려 시도한 연구들은 주로 집합주의 혹은 개인주의로 문화를 구분하는

관점을 취하여 왔다. 이 세상의 다양한 국가와 문화 혹은 집단을 이로 구분하는 이론적 틀은 Hofstede(1980)와 Triandis(1989)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들에 의하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한 개인은 집단 속의 개별적인 개체로써 간주된다. 또한 집단의 목표보다는 개인의 목표가 우선시되며, 한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사회의 규범보다는 그 사람이 지닌 태도나 선호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집합주의 문화에서는 한 개인은 집단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상호의존적인 개체로써 간주된다. 또한 개인의 목표보다는 집단의 목표가 우선시되며, 한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지닌 태도보다는 그 사회의 규범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집합주의 문화에서 자기개념은 개인주의 문화보다 상호의존적이고 집합적이며 조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구성된다고 알려져 왔다. 따라서 집합주의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사회상황에서 자신의 역할과 대인관계에 더 관심을 기울이므로 개인주의 문화에 속한 사람들보다 사회비교를 더 추구한다고 예측할 수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를 통해서 지지되었다(White & Lehman, 2005). 특히 한 연구(White & Lehman, 2005의 연구 1)는 유럽계 캐나다인들보다 아시아계 캐나다인들이 사회비교를 일반적으로 더 선호하고, 특히 하향비교보다 상향비교를 더 추구하는 점을 보였다.

White와 Lehman(2005의 연구 2)에서는 유럽계 캐나다인과 아시아계 캐나다인들에게 낮은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나서 수행이 우수했거나 저조했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나서 더 자세히 결과를 알고 싶은 내용을 0부터 7 중 하나를 골라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에서 유럽계 캐나다인들은 자신의 수행이 우수하였건 저조하였건 보고 싶어 한 검사의 개수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다. 반면에 아시아계 캐나다인들은 우수하였을 때보다 저조하였을 때 보고 싶어 한 검사의 개수가 유의하게 더 많았다. 이외에도 북미인들은 실패한 과제보다는 성공한 과제를 이후에 더 하고 싶어 하지만, 일본인들은 성공한 과제보다 실패한 과제를 이후에 더 하고 싶어 한 점을 보인 연구도 있다(Heine et al., 2001).

선행 연구들을 보면, 집합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은 어떤 과제에 실패하면 그 과제에 더욱 매달리고, 자신이 우

수할 때보다 저조할 때에 사회비교하는 행동의 빈도도 높아진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여러 연구자들(Heine et al., 1999; Heine et al., 2001; White & Lehman, 2005의 연구 2)은 집합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은 자기향상의 동기가 더 잘 작동하는데, 이는 집합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이 집단의 높은 기준, 목표 혹은 규준에 도달하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로 인해서 실패경험은 일정한 기준이나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자 하도록 만들고 그에 도달하고자 노력하도록 유발시킨다. 반면에 개인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은 성공이 예상되는 과제를 더 선호하는 점을 보였다(Heine et al., 2001). 이들 연구자들은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존심을 방어하거나 고양시키려 노력하기 때문에 성공이 예상되는 과제를 더 선호한다고 해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보면, 사회비교 과정에서 사회비교 자체에 대한 관심이나 선호하는 정도 그리고 성공이나 실패를 경험한 후 작동하는 동기는 문화에 따라서 달라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합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에 속한다고 간주되는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한국과 미국에서 성공/실패 경험과 비교대상이 자기 평가에 미치는 효과

성공이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비교대상에 따라 자기 평가가 한국과 미국에서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해보자. 본 연구에서는 성공보다 실패 조건에서 자존심을 유지하거나 회복시키려는 동기가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로 인해 실패조건에서 자신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한 사람과 비교하는 과정을 자존심을 높이는 방략으로 사용한다고 간주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예상되는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과제에서 성공한 조건에서는 위험을 경험하지 않으므로 전반적 자기평가가 손상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반면에 과제에서 실패한 조건에서는 손상된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과정이 작동하므로 이 때 비교대상이 자존심을 회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는 문화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가정하였는데,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실패했을 때 상향비교를 선

호하고, 집합주의 문화에서는 실패했을 때 하향비교를 선호하므로 한국인들은 상향비교대상과 동화하여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고, 미국인들은 하향비교대상과 대비하여 자신을 방어하고자 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로 인해서 한국인들은 실패를 경험하고 상향비교할 때 비교대상과 동화하므로, 상향비교할 때에는 실패 조건과 성공 조건에서 자기평가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하향비교할 때 비교대상과 대비하려는 경향은 낮아서 성공조건에 비해서 실패조건에서 자기평가가 더 낮을 것으로 보았다(가설 1-1). 반면에 미국인들은 실패를 경험하고 하향비교할 때 비교대상과 대비하므로, 하향비교할 때에는 실패 조건과 성공 조건에서 자기평가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상향비교할 때 비교대상과 동화하려는 경향이 낮아서 성공조건에 비해서 실패조건에서 자기평가가 더 낮을 것으로 보았다(가설 2-1).

한국과 미국에서 비교횟수와 비교대상이 자기 평가에 미치는 효과

다음으로 비교를 많이 하거나 적게 할 때에 비교대상에 따라서 한국과 미국에서 자기평가가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보자. 본 연구에서는 비교횟수는 정보처리의 수준을 달라지게 할 것으로 보았다. 태도와 설득에 대한 여러 선행 연구들을 보면, 접근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정보를 정교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높아진다(Fabrigar, Priester, Petty, & Wegener, 1998; Petty & Cacioppo, 1986). 이를 사회비교하는 장면으로 옮겨보면, 사회비교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이 정보를 더욱 정교하게 처리하게 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대로 집합주의 문화권에서는 사회비교를 추구하는 경향이나 이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White & Lehman, 2005), 어린 시절부터 비교를 강요받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더 높다(한덕웅, 장은영, 2003). 이와 같이 비교경험이 많거나 비교에 관심이 많으면, 사회비교와 관련된 정보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는 여러 가지 비교정보가 제공될 때에 접근가능성을 높여서 정교하게 처리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반면에 비교경험이 적거나 관심이 적으면, 여러 가지 비교정보가 제공될 때 오히려 정교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낮

아지게 된다.

집합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은 비교횟수가 많을 때에 정교하게 정보처리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비교대상과 대비하려는 방향으로 자기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에 개인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은 비교횟수가 많아지면, 이는 인지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비교대상과 동화하려는 방향으로 자기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비교대상이 전반적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횟수 그리고 개인이 속한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즉,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비교횟수가 많아질수록 정교하게 정보처리하여 대비효과가 일어나므로 상향비교 조건에서는 비교횟수가 많아질수록 자기평가가 더 낮고, 하향비교 조건에서는 비교횟수가 많아질수록 자기평가가 더 높을 것이라고 보았다(가설 1-2). 반면에 미국인들의 경우에는 비교횟수가 많아질수록 덜 정교하게 정보처리하여 동화효과가 일어나므로 상향비교 조건에서는 비교횟수가 많아질수록 자기평가가 더 높고, 하향비교 조건에서는 비교횟수가 많아질수록 자기평가가 더 낮을 것이라고 보았다(가설 2-2).

사회비교동기의 기능

본 연구에서는 부가적으로 사회비교동기를 측정하여, 자기평가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점과 사회비교의 세 가지 동기가 관련되는지 알아보았다. 사회비교동기는 자기향상동기, 자기평가동기 및 자기고양동기로 나눌 수 있다. 선행연구(장은영, 한덕웅, 2004; Taylor, Wayment, & Carillo, 1996)를 보면, 자기향상동기는 자신을 스스로를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과 비교하려는 경향을 의미하고, 자기평가동기는 스스로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자신과 유사한 사람과 비교하려는 경향을 의미하며, 자기고양동기는 자존심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과 비교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각각은 순서대로 상향비교, 유사비교, 하향비교로 충족된다. 두 실험을 통해 상향비교와 하향비교를 조작하게 되므로, 이 각각의 조건에서는 자기향상동기와 자기고양동기가 자기평가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각 실험 조건에서 이 비교동기와 자기평가의 관련성도 탐색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1 : 한국대학생들의 사회비교

연구 방법

실험 절차

참가자들은 2명씩 함께 실험에 참여했다. 실험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지시문을 읽으면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컴퓨터 사이에 칸막이를 두어서 참가자는 다른 사람의 화면을 볼 수 없도록 준비하였다. 실험이 시작되면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다면적성검사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예비과제와 연습과제를 마친 후에 이 검사에서는 주로 학습능력, 대인관계, 예술적 감수성 및 운동반응 능력을 측정한다고 알려주었다. 첫 번째 검사의 본과제를 마치면 개인의 수행수준에 관한 정보로 환류를 조작하였다. 수행결과는 첫 번째 검사에서 개인이 얻은 점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성공경험과 실패경험로 조작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검사를 시작한다고 알려주고 이 검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글을 읽고 인상을 형성하는 과제라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 검사가 시작되면 참가자들은 익명의 다른 사람을 기술한 글을 읽게 된다. 이 때 읽게 되는 기술문으로 비교대상과 아울러 비교횟수를 조작하였다. 비교대상은 익명의 다른 사람이 매우 우수하거나 혹은 매우 열등하다고 기술하여서 각각 상향비교와 하향비교로 조작하였다. 비교횟수는 참가자들이 읽게 되는 기술문의 개수로 조작하였다. 비교횟수가 많은 조건에서는 비교하게 되는 대상이 매우 우수하거나(상향비교 대상) 혹은 매우 열등하다고(하향비교 대상) 달리 기술한 글을 네 속성에 관해서 읽게 되고, 비교횟수가 적은 조건에서는 두 속성에 관해서만 읽게 된다. 그 후 참가자들에게 두 번째 검사의 일부라고 알려주고 주종속치를 측정하는데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평가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때 자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한 내용이 주종속치이다. 주종속치에 응답하고 나면 조작점점 문항에 응답하고, 부가적 측정치로 사회비교의 세 가지 동기인 자기향상동기, 자기평가동기 및 자기고양동기를 측정하는 문항들(한덕웅, 장은영, 2003)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과제

다면적성검사라고 명명한 과제를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에게 이 검사가 사람들의 다양한 능력이나 성격을 알아

보는데 유용하다고 알려주었다. 이 검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검사에서는 사람들의 능력과 성격의 다양한 측면을 알아보게 된다고 알려준다. 첫 검사에서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능력과 성격을 측정한다고 설명하였다. 먼저 표적그림이 제시되었다가 사라지고, 다음으로 제시되는 세 개 그림 중에서 앞서 나타났던 표적그림과 동일한 그림을 찾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에게 예제를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고 나서, 채점방식에 대해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검사에서는 정해진 시간 동안에 총 응답한 개수, 반응하는데 걸린 시간 및 정확히 응답한 개수를 감안하여 채점한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한번 응답한 내용을 고칠 수는 있지만, 일단 응답한 후에는 고칠 때마다 일정하게 감점된다고 알려주었다. 또한 각 문제당 제한시간이 5초이므로 5초 안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과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1분간 연습과제를 실시하고, 본과제는 5분간 실시하였다.

참가자

성균관대학교에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대학생 158명이 참가하였다. 이 중에서 측정치를 모두 완성하지 않거나 조작점검 문항에서 잘못 응답한 18명은 제외시키고, 140명이 8개 조건에 15명에서 19명씩 포함되었다.

실험설계

2(수행결과 : 성공/실패)×2(비교대상 : 상향/하향)×2(비교 횟수 : 많음/적음)로 세 개의 독립변인이 모두 집단간 변인인 삼원 완전무선 요인설계이다.

독립변인의 조작

개인의 수행결과는 성공경험과 실패경험의 두 조건이었다. 성공경험 조건에서는 ‘귀하와 동일한 연령 및 학력을 지닌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첫 번째 검사에서 귀하의 개인 점수를 계산하였습니다. 그 결과 귀하는 상위 21%(19, 20, 21 중에 하나를 제시함)에 해당하는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검사에서 나타난 귀하의 전반적인 적성은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라고 알려주었다. 실패경험 조건에서는 ‘귀하와 동일한 연령 및 학력을 지닌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첫 번째 적성검사에서 귀하의 개인 점수를 계산하였습니다. 그 결과 귀하는 하위

79%(79, 80, 81 중에 하나를 제시함)에 해당하는 낮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검사에서 나타난 귀하의 전반적인 적성은 저조한 편에 속합니다.’라고 알려주었다. 비교대상의 조작은 상향비교와 하향비교의 두 조건이었다. 상향비교 조건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어떤 우수한 사람을 기술한 문장을 읽도록 하였다. 기술문은 총 네 종류였는데, 각각 학업능력, 대인관계, 운동능력 및 예술적 감수성 차원에서 우수한 사람을 기술한 내용이었다. 하향비교 조건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어떤 열등한 사람을 기술한 문장을 읽도록 하였다. 기술문은 총 네 종류였는데, 각각 학업능력, 대인관계, 운동능력 및 예술적 감수성 차원에서 열등한 사람을 기술한 내용이었다. 참가자들은 이 네 가지 기술문 중에서 비교 횟수가 많고 적은 조건에 따라서 각각 네 개 혹은 두 개의 기술문을 읽었다. 먼저 참가자들에게 두 번째 검사가 시작되고 나서 준비된 여섯 가지 글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읽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A, B, C, D, E 및 F의 여섯 개 선택지 중에서 네 개를 고르도록 하였다. 다만 참가자가 어떠한 네 개의 조합을 선택하건 제시되는 기술문은 미리 정해둔 대로 제시되도록 하였다. 비교횟수가 많은 조건에서는 네 가지 기술문이 각 실험 조건마다 동일한 비율로 제시되도록 미리 정해두었다. 비교횟수가 적은 조건에서는 두 개를 고르도록 한다. 준비된 네 개의 기술문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6가지이다. 따라서 비교 횟수가 낮은 각 실험 조건마다 이 6가지 기술문 조합이 거의 동일한 비율로 제시되도록 미리 준비하였다.

주종속치

독립변인을 모두 조작하고 나서 두 번째 인상형성 과제의 일부로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때 참가자들은 총 7개의 문항(‘내 능력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편이다’, ‘나는 내 자신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 자신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자신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자신이 형편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한다’)에 7점 척도(0 : 전혀 그렇지 않다, 6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이 7개의 문항들은 두 개의 요인으로 나뉘었는데, ‘나는 내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의 문항은 어

면 특정한 요인에 부하량이 더 높지 않았다. 따라서 이 문항을 제외하고 6개의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에서 '나는 내 자신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와 '나는 내 자신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의 첫 번째 요인과 '내 능력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편이다', '나는 내 자신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 자신이 형편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한다'의 두 번째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요인의 신뢰도(Cronbach's α)는 .61이었고, 두 번째 요인의 신뢰도는 $\alpha=.81$ 이었으며, 두 번째 요인에 포함된 네 개 문항의 개인별 평균값을 종속치로 사용하였다.)

부가측정치

현재까지 사회비교 과정에서 작동한다고 제안된 세부 동기들을 실제로 측정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는데 (한덕용, 장은영, 2003; Gibbons & Buunk, 1999), 그 중에서 본 연구는 한덕용과 장은영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한국대학생들의 자기향상, 자기평가 및 자기고양과 같은 사회비교의 동기 수준을 측정하고, 자기평가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탐색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기향상동기 5문항(예, '내가 더 좋아질 수 있다면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 비교하려고 한다.')의 신뢰도는 $\alpha=.90$, 자기평가동기 5문항(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비교하려는 마음이 생긴다.')의 신뢰도는 $\alpha=.89$, 자기고양동기 5문항(예, '나를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이유는 자존심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의 신뢰도는 $\alpha=.91$ 이었다.

연구 결과

독립변인의 조작효과 점검

수행결과의 조작효과는 '첫 번째 적성검사에서 당신의

1) 한국자료에서는 최종 6개 문항이 이요인 구조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 이외에 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요인에 대해서도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여기서는 비교대상의 주효과, $F(1,139)=4.12, p<.05$, 와 삼원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1,139)=4.67, p<.05$. 그 세부내용도 현재 제시된 종속변인을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다만, 2개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은 신뢰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며, 자신의 우수함과 유능함을 평가한 점에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서 본문에 기술하지 않았다.

점수는 좋은 편이었습니까?'에 대해 7점 척도('3' : 전혀 그렇지 않다, '+3'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값을 2(수행결과) \times 2(비교대상) \times 2(비교횟수)로 변량분석하여 알아보았으며, 수행결과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F(1, 139)=43.49, p<.001$. 즉, 성공경험 조건($M=3.69$)에서 실패경험 조건($M=2.06$) 보다 자신의 검사 점수가 더 좋다고 응답했다.

비교대상의 조작효과는 '당신은 두 번째 검사에서 다른 사람을 기술했던 내용의 글을 읽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사람의 학업능력은 좋은 편이었습니까?', '글에 등장하는 사람의 대인관계 수준은 좋은 편이었습니까?', '글에 등장하는 사람의 예술적 감수성은 좋은 편이었습니까?', '글에 등장하는 사람의 운동능력은 좋은 편이었습니까?'에 7점 척도('3' : 전혀 그렇지 않다, '+3'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값의 개인별 평균값을 구하여 2(수행결과) \times 2(비교대상) \times 2(비교횟수)로 변량분석하였다. 그 결과에서 비교대상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F(1, 139)=472.88, p<.001$. 즉, 상향비교 조건($M=5.92$)에서 하향비교 조건($M=2.29$) 보다 비교대상이 더 우수하다고 응답하였다.

비교횟수의 조작효과는 '글을 읽으면서 글에 등장하는 사람이 머릿속에 자주 떠올랐습니까?'에 대해 7점 척도('3' : 전혀 그렇지 않다, '+3'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값을 2(수행결과) \times 2(비교대상) \times 2(비교횟수)로 변량분석하여 알아보았으며, 비교횟수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F(1, 139)=3.63, p<.05$. 즉, 비교횟수가 많은 조건($M=4.37$)에서 적은 조건($M=4.06$)보다 글에 등장하는 사람이 더 자주 떠올랐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독립변인의 조작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 자기평가에 대한 변량분석

부정적으로 자기평가하는 세 문항에 대한 응답은 역산하여 전체 네 문항의 개인별 평균을 구하였다. 값이 클수록 전반적 자기평가가 더 높음을 의미하는데, 실험 조건별 평균값은 그림 1에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이 값들에 대해 2(수행결과) \times 2(비교대상) \times 2(비교횟수)로 변량분석하였는데, 사회비교 변인들로 부정적 자기평가의 16%를 설명했다.)

2) 본 연구에서는 각 실험조건마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포함되었다. 따라서 성별까지 포함한 사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에서 성별의 주효과나 성별이 포함된 상호작용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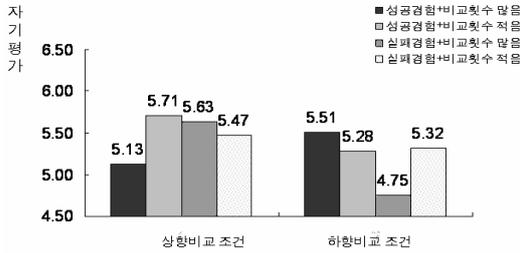


그림 1. 한국대학생들의 자기평가

변량분석 결과를 보면, 비교대상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F(1, 139)=5.53, p<.05$. 구체적으로 상향비교 조건 ($M=5.49$)에서 하향비교 조건($M=5.22$)보다 자기평가가 더 높았다. 다음으로 수행결과와 비교대상의 이원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1, 139)=4.59, p<.05$. 구체적으로 상향비교 조건에서는 성공경험 조건($M=5.42$)과 실패경험 조건($M=5.55$)에서 자기평가가 달라지지 않았으나, 하향비교 조건에서는 실패경험 조건($M=5.04$)보다 성공경험 조건($M=5.40$)에서 자기평가가 더 높았다, $F(1, 139)=5.69, p<.05$. 따라서 가설 1-1이 지지되었다. 반면에 수행결과와 비교횟수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아서,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이상에서 기술한 결과들은 유의한 삼원상호작용 효과로 해석에 제한이 있다, $F(1, 139)=11.21, p<.001$. 삼원상호작용의 효과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상향비교와 하향비교 조건으로 나누어서 단순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에서 각각 단순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F(1, 139)=4.93, p<.05, F(1, 139)=6.82, p<.01$. 먼저 상향비교 조건에서는 성공을 경험했을 때 비교횟수에 따라서 자기평가가 달라졌다. 구체적으로 성공을 경험하고 상향비교하는 조건에서는 비교횟수가 적을 때($M=5.71$)보다 많을 때($M=5.13$) 자기평가가 더 낮았다, $F(1, 139)=6.39, p<.05$. 반면에 실패를 경험하고 상향비교하는 조건에서는 비교횟수에 따라서 자기평가가 달라지지 않았다. 다음으로 하향비교 조건에서는 실패를 경험했을 때 비교횟수

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이 때 비교횟수의 주효과가 유의한 경향을 보였으며, $F(1,139)=3.50, p=.07$, 이외에 비교대상의 주효과, $F(1,139)=4.27, p<.05$, 수행환류와 비교대상의 이원상호작용효과, $F(1,139)=5.81, p<.05$, 그리고 수행환류, 비교대상 및 비교횟수의 삼원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 $F(1, 139)=12.23, p<.01$.

에 따라서 자기평가가 달라졌다. 구체적으로 실패를 경험하고 하향비교하는 조건에서는 비교횟수가 적을 때($M=5.32$)보다 많을 때($M=4.75$) 자기평가가 더 낮았다, $F(1, 139)=6.89, p<.01$. 반면에 성공을 경험하고 하향비교하는 조건에서는 비교횟수에 따라서 자기평가가 달라지지 않았다.

사회비교동기의 기능

실험조건에 따라 사회비교의 세 가지 동기, 즉 자기향상동기, 자기평가동기 그리고 자기요양동기가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수행에 성공하고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과 비교를 많이 한 조건, 수행에 성공하고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과 비교를 적게 한 조건, 수행에 성공하고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과 비교를 많이 한 조건, 수행에 성공하고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과 비교를 많이 한 조건, 수행에 실패하고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과 비교를 많이 한 조건, 수행에 실패하고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과 비교를 적게 한 조건, 수행에 실패하고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과 비교를 많이 한 조건, 수행에 실패하고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과 비교를 많이 한 조건의 여덟 가지 실험 조건별로 세 가지 사회비교의 동기와 주종속치인 자기평가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를 보면, 비교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사회비교의 동기는 전반적인 자기평가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과 비교하는 경우에도 사회비교의 동기는 전반적인 자기평가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들이건 열등한 사람들이건 여러 차례 비교가 이루어지면 자기평가는 사회비교동기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패를 경험하여 자존심에 위협을 경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건에서 이에 적합한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과 비교하여 가장 우세했던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했던 동기가 충족되면, 이 때에도 자기평가는 사회비교동기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수행에 성공하고 나서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과 적은 횟수로 비교할 때에 자신을 향상시키고 싶은 동기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도 높았다, $r=.45, p<.10$. 반면에 성공하고 나서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과 적

표 1. 한국자료에서 각 실험조건별 사회비교동기와 전반적 자기평가의 상관계수

		상향비교 조건			하향비교 조건			
		성공경험 조건	실패경험 조건		성공경험 조건	실패경험 조건		
많은 비교횟수	자기향상동기	.34	자기향상동기	.06	자기향상동기	.32	자기향상동기	.09
	자기평가동기	.19	자기평가동기	.20	자기평가동기	.20	자기평가동기	-.19
	자기고양동기	-.14	자기고양동기	.17	자기고양동기	.11	자기고양동기	.34
적은 비교횟수	자기향상동기	.45*	자기향상동기	-.44*	자기향상동기	.19	자기향상동기	.24
	자기평가동기	.28	자기평가동기	-.53*	자기평가동기	.28	자기평가동기	.03
	자기고양동기	.19	자기고양동기	-.57*	자기고양동기	.43*	자기고양동기	-.04

* $p < .10$, ** $p < .05$

은 횟수로 비교할 때에 자신의 자존심을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 $r = .43$, $p < .10$. 이에 더해서 실패를 경험하고나서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과 적은 횟수로 비교할 때에는 자신을 향상시키고 싶은 동기가 낮을수록, $r = -.44$, $p < .10$, 자신에 대해 정확히 평가하고 싶은 동기가 낮을수록, $r = -.53$, $p < .05$, 자신의 자존심을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낮을수록, $r = -.57$, $p < .05$, 전반적인 자기평가는 높았다.

연구 2 : 미국대학생들의 사회비교

연구 방법

실험 절차

연구 1과 동일하게 참가자들은 2명씩 함께 실험에 참여하였고, 참가자들은 각자 다른 독립된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지시문을 읽으면서 실험이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직접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자는 인터콤 장치가 되어있는 메인룸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참가자가 도착하면 정해진 방으로 안내하고, 본 연구의 목적이 대학생들의 다양한 적성 수준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컴퓨터를 통해 다면적성검사(Multiple Aptitude Test)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인상형성과제(Impression Formation Test)를 받게 된다고 알려주었다. 컴퓨터를 작동하는 법과 필요할 때 연구자를 부르기 위해서 인터콤을 작동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연구자는 참가자의 방에서 나오게 되고, 참가자 혼자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후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참가자는 다면적성검사는 학습능력, 대인관계, 예술적 감수성 및 운동반응능력을 측정한다는 설명을 화면을 통해서 읽었다. 다면적성검사의 본과제를 마치고나면, 본 연구의 첫 번째 독립변인인 수행결과를 조작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검사를 시작한다고 알려주고 이 검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글을 읽고 인상을 형성하는 과제라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 검사가 시작되면 참가자들은 익명의 다른 사람을 기술한 글을 읽었다. 이 때 읽게 되는 기술문으로 비교대상과 비교 횟수 수준을 조작하였다. 비교대상은 익명의 다른 사람을 매우 우수하거나 혹은 매우 열등하게 기술하여서 상향비교와 하향비교로 조작하였다. 비교 횟수는 참가자들이 읽게 되는 기술문의 개수로 조작하였다. 비교 횟수가 많은 조건에서는 매우 우수하거나 매우 열등하게 기술한 글을 네 개 읽고, 비교 횟수가 적은 조건에서는 두 개 읽었다. 그리고 나서 주종속치를 측정하는데 참가자들에게 두 번째 검사의 일부라고 알려주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평가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한 값의 평균을 주종속치로 사용하였다. 주종속치에 응답하고 나면 조작점검 및 부가적 측정치의 문항들에 응답하였다. 모든 실험 절차가 끝나고 나면, 참가자들은 디브리핑(debriefing)을 받았다.

과제

과제는 연구 1과 다소 달랐다. 구체적으로 연구 1에서는 첫 번째 과제인 다면적성검사에서 한 가지 유형의 소

검사만 실시되었으나, 연구 2에서는 첫 번째 과제인 다면 적성검사에 세 개의 새로운 소검사가 추가되어서 총 네 가지 유형의 소검사가 실시되었다.

참가자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학부생들 중 심리학개론, 발달심리학 및 사회심리학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학점이수의 필수요건으로 한 학기 당 일정한 횟수 이상의 연구에 참여해야 한다. 연구자가 실험이 가능한 스케줄을 학과에서 지정한 실험참가 신청판에 부착하면,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이후 정해진 시각에 정해진 실험실로 왔다. 한 회기에 2명씩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156명의 자료가 얻어졌으며, 이 중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측하였거나 혹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나름의 가설을 가지고 연구에 임한 것으로 확인된 23명의 자료가 제외되었다. 나머지 133명의 자료 중에서 Caucasian이 아닌 16명이 제외되어 117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117명이 8개 조건에 13명에서 16명씩 포함되었다.

실험설계

연구 1과 동일하게 2(수행결과 : 성공/실패)×2(비교대상 : 상향/하향)×2(비교 횟수 : 많음/적음)로 3개의 독립변인이 모두 집단간 변인인 삼원 완전무선 요인설계이다.

독립변인의 조작

독립변인의 조작은 두 가지 점에서만 연구 1과 달랐다. 첫째는 조작이 영어로 이루어진 점이고, 둘째는 수행결과와 성공과 실패를 조작한 수준이었다. 연구 1에서는 성공 조건의 경우에 상위 20%, 실패 조건의 경우에 하위 20%에 해당한다고 알려주었지만, 연구 1에서는 성공 조건의 경우에 상위 10%, 실패 조건의 경우에 하위 30%에 해당한다고 알려주었다.³⁾

주종속치

연구 1에서 사용한 7개 문항을 영어로 옮겨 사용하였다.

3) 성공과 실패를 조작할 때에 백분위를 연구 1에 비해서 10씩 높은 이유는 이 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통상적인 기준에 근거한 것이다.

이 7개의 문항들('I think I am successful', 'My general ability is bad', 'I think I am a person of ability', 'I think I am a failure', 'I think I am smart', 'I think I am incompetent', 'I think I am respectable')은 요인분석에서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다. 다만 연구 1에 상응하는 종속치를 구성하기 위해서 'My general ability is bad', 'I think I am a failure', 'I think I am incompetent' 그리고 'I think I am successful'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 $\alpha = .76$ 이었다.

부가측정치

한덕웅과 장은영이 개발한 척도를 이중언어가 가능한 두 사람의 심리학자가 수정하였고, 원어민 심리학자들이 다시 일부 수정하였다. 앞서 연구 1과 같이 각 5문항씩으로 구성된 자기향상동기(예, 'If I could be better, I would try to compare myself with someone superior to me'), 자기평가동기(예, 'I usually want to compare myself with someone similar to me in order to know accurately who I am') 및 자기고양동기(예, 'The reason I compare myself with other people is that I don't want to lose my self-esteem')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신뢰도는 순서대로 .82, .89, .91이었다.

연구 결과

독립변인의 조작효과 점검

수행결과와 조작효과는 '첫 번째로 받은 다면적성검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점수는 좋았습니까 (Please think about the Multiple Aptitude Test which you took first. Was your score good?)'에 대해 7점 척도('3' : not at all, '+3' : extremely)로 응답한 값을 2(수행결과)×2(비교대상)×2(비교횟수)로 변량분석하여 알아보았으며, 수행결과와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F(1, 109) = 129.44, p < .001$. 즉, 성공경험 조건($M = 5.63$)에서 실패경험 조건($M = 2.33$) 보다 자신의 검사 점수가 더 좋다고 응답했다.

비교대상의 조작효과는 '두 번째로 받은 인상형성검사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들을 기술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에 등장하는 사람의 학업 수준은 좋았습니까(During the impression formation test which you took second,

you read some descriptions which were depicting a person. Was the academic performance of that person good)?’, ‘그 글에 등장하는 사람의 대인관계 수준은 좋았습니까(Were the interpersonal skills of that person good)?’, ‘그 글에 등장하는 사람의 운동능력은 좋았습니까(Was the athletic ability of that person good)?’, 그리고 ‘그 글에 등장하는 사람의 예술적 창의성은 좋았습니까(Was the artistic creativity of that person good)?’에 7점 척도(‘-3’ : not at all, ‘+3’ : extremely)로 응답한 결과를 개인별 평균값을 구하여 2(수행결과)×2(비교대상)×2(비교횟수)로 변량분석하였다. 그 결과에서 비교대상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F(1, 109)=179.74, p<.001$. 즉, 상향 비교 조건($M=5.95$)에서 하향비교 조건($M=2.41$)보다 비교대상이 더 우수하다고 응답하였다.

비교횟수의 조작효과는 ‘두 번째로 받은 인상형성 검사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들을 기술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쳤습니까(At the impression formation test which you took second, you read some descriptions which were depicting some people. Were those people influential when you judged yourself)?’에 대해 7점 척도(‘-3’ 전혀 그렇지 않다, ‘3’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값을 2(수행결과)×2(비교대상)×2(비교횟수)로 변량분석하여 알아보았으며, 비교횟수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비교대상과 비교횟수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1, 109)=3.72, p<.05$. 구체적으로 상향비교 조건에서는 비교횟수가 적을 때($M=3.79$)보다 많을 때($M=4.23$) 더 영향받았다고 응답했으나, $F(1, 109)=2.09, p<.05$, 하향비교 조건에서는 비교횟수가 많을 때($M=4.81$)보다 적을 때($M=5.61$) 더 영향 받았다고 응답했다, $F(1, 109)=4.99, p<.05$.

전반적 자기평가에 대한 변량분석

연구 1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였으며, 값이 클수록 자기평가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실험 조건별 평균 값은 그림 2에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이 값들에 대해 2(수행결과)×2(비교대상)×2(비교횟수)로 변량분석하였는데, 사회비교 변인들로 부정적 자기평가의 12%를 설명했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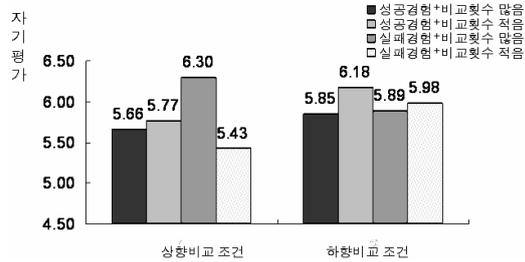


그림 2. 미국대학생들의 자기평가

변량분석 결과를 보면, 수행결과와 비교횟수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 $F(1, 106)=5.09, p<.05$. 구체적으로 성공경험 조건에서는 비교횟수가 많거나($M=5.75$) 적거나($M=5.98$)에 따라서 자기평가가 달라지지 않았으나, 실패경험 조건에서는 비교횟수가 적을 때($M=5.71$)보다 많을 때($M=6.10$) 자기평가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F(1, 106)=3.69, p=.06$. 따라서 가설 2-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또한 비교대상과 비교횟수의 이원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1, 106)=4.79, p<.05$. 구체적으로 하향비교 조건에서는 비교횟수가 많거나($M=5.87$) 적거나($M=6.08$)에 따라서 자기평가가 달라지지 않았으나, 상향비교 조건에서는 비교횟수가 적을 때($M=5.60$)보다 많을 때($M=5.98$) 자기평가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F(1, 106)=3.37, p=.07$.

반면에 수행결과와 비교대상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아서,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사회비교동기의 기능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실험조건에 따라 사회비교의 세 가지 동기, 즉 자기향상동기, 자기평가동기 그리고 자기고양동기가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사회비교의 동기는 한덕웅과 장은영(2003)이 개발한 척도를 영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여덟 가지 실험 조건별로 세 가지 사회비교의 동

4) 연구 2에서도 성별까지 포함한 사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에서 성별의 주효과나 성별이 포함된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수행결과, 비교횟수 및 성별의 삼원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경향을 보였으며, $F(1, 109)=2.94, p=.09$. 이외에 수행결과와 비교횟수의 이원상호작용효과, $F(1, 109)=5.94, p<.05$, 비교대상과 비교횟수의 이원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 $F(1, 109)=4.16, p<.05$.

표 2. 미국자료에서 각 실험조건별 사회비교동기와 전반적 자기평가의 상관계수

		상향비교 조건				하향비교 조건			
		성공경험 조건		실패경험 조건		성공경험 조건		실패경험 조건	
많은 비교횟수	자기향상동기	.08	자기향상동기	-.37	자기향상동기	-.15	자기향상동기	.03	
	자기평가동기	-.05	자기평가동기	-.52*	자기평가동기	-.55*	자기평가동기	-.26	
	자기고양동기	-.46†	자기고양동기	-.30	자기고양동기	.21	자기고양동기	-.19	
적은 비교횟수	자기향상동기	.09	자기향상동기	-.32	자기향상동기	-.25	자기향상동기	.25	
	자기평가동기	.02	자기평가동기	-.47†	자기평가동기	-.26	자기평가동기	.11	
	자기고양동기	.00	자기고양동기	-.40	자기고양동기	.11	자기고양동기	-.02	

† $p < .10$, * $p < .05$

기와 자기평가의 상관계수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를 보면, 실패를 경험하여 자존심에 위협을 경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건에서 이에 적합한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과 비교하면 연구 1과 동일하게 자기평가는 사회비교동기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에 전체적으로 비교 횟수가 많은 조건에서 사회비교의 동기가 자기평가와 관련되는 점을 볼 수 있다. 먼저, 수행에 성공하고나서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과 많은 횟수로 비교할 때에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동기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낮았다, $r = -.46, p < .10$. 반면에 성공하고나서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과 많은 횟수로 비교할 때에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낮았다, $r = -.55, p < .05$. 부가하여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비교횟수가 많을 때와, $r = -.52, p < .05$, 적을 때, $r = -.47, p < .10$,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낮았다.

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성공과 실패경험을 조작하여 실패한 조건에서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동기가 작동하면 각 문화마다 선호하는 비교대상을 통하여 자존심을 방어하거나 고양시키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문화마다 사회비교에 민감하거나 익숙한 정도가 다르다고 보았고, 사회비교에 민감한 문화권의 사람들일수록 비교횟수가 많아지면 사회비교하는 과정에서 정교화 수준이 높아지고, 이는 비교대상이 자기평가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자기 집합주의 및 개인주의 문화권에 속한다고 알려진 두 국가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두 실험이 각기 다른 시점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고, 한국과 미국에서 성공과 실패를 조작한 수준이 다르며, 참가자들이 받은 검사도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문화를 변인으로 잡아서 함께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한국과 미국대학생들이 사회비교에 반응하는 방식을 통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사원변량분석을 부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제 그 결과를 살펴보고, 두 국가의 대학생들에게서 얻은 차이점을 위주로 전체 결과를 종합해 보자.

변량분석에서는 문화의 주효과, $F(1, 241) = 36.06, p < .001$, 문화와 비교대상의 이원상호작용 효과, $F(1, 241) = 6.70, p < .01$, 수행결과와 비교대상의 이원상호작용 효과, $F(1, 241) = 4.18, p < .05$, 수행결과, 비교대상 및 비교횟수의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F(1, 241) = 10.37, p < .001$. 이에 더해 문화, 비교대상 및 비교횟수의 삼원상호작용은 유의한 경향을 보였다, $F(1, 241) = 3.22, p < .08$.

먼저 본 연구의 가설과 관련되는 효과들을 살펴보자. 이는 수행결과와 비교대상의 이원상호작용효과가 해당한다. 그런데 본 연구의 가설 1-1 그리고 가설 2-1를 고려하면, 수행결과와 비교대상의 이원효과가 아닌 이에 문화까지 더해진 삼원상호작용이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대학생들에게서 가설 2-1이 기각되어서,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과 비교할 때 이전 실패 경험이 자기평가를 낮추지 않고 오히려 자기평가를 높인데 기인한다. 반면에 본 연구의 예측대로 한

국대학생들은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과 비교할 때에는 이전 성공 경험이 자기평가를 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문화, 비교대상 및 비교횟수의 삼원상호작용은 유의한 경향을 보였다. 다만, 세부 내용을 보면, 앞서 살펴본 결과와 일관되게 한국대학생에게서 가설 2-1은 기각되었고, 미국대학생들에게서 가설 2-2는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이상에서 가설과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 부분에서 자세히 논의될 것이므로, 사원변량분석에서 유의했던 나머지 효과들을 살펴보자. 문화의 주효과 및 문화와 비교대상의 상호작용 효과는 본 연구에서 예측하지 않았다. 문화의 주효과는 한국대학생들보다 미국대학생들의 자기평가가 대체로 높았던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연구들(Hetts, Sakuma, & Pelham, 1999; Kitayama, Markus, Matsumoto, & Norasakkunkit, 1997)에서 서양인들이 동양인들보다 명시적으로 자기평가하도록 했을 때,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본 점이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관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성공과 실패 경험의 조작 수준이 달랐으므로, 문화의 주효과를 단지 문화의 차이로만 귀인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화에 따른 자기평가의 차이는 나머지 상호작용 효과를 해석하는데 제약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문화와 비교대상의 이원상호작용 효과는 비교대상의 주효과가 한국대학생들에게서만 나타난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대학생들은 일부 선행연구들과 일관되게 비교대상에 따라서 자기를 달리 평가하지 않았지만, 한국대학생들은 비교대상에 따라서 자기평가가 달라졌으며, 하향비교할 때보다 상향비교할 때에 자기평가가 높아졌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동양인들이 상향비교를 상대적으로 더 추구하고, 자기를 향상시키고 집단의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이 높으며(White & Lehman, 2005),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이 이러한 동기를 충족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비교대상이었다(장은영, 한덕용, 2004). 본 연구의 결과는 이에 더해 이들이 상향비교를 추구하는 또 다른 원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집합주의 문화권, 적어도 한국의 대학생들에게서는 상향비교하면 자기평가가 높아지는 순기능이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를 문화를 제외한 세 변인들의 삼원상호작용효과와 함께 고려하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난다. 연구 1의 결과에서 살펴

본 내용과 일관되게 한국자료에서는 성공하고 상향비교할 때와 실패하고 하향비교할 때에 비교횟수에 따라서 자기평가가 달라졌다. 즉, 한국의 대학생들은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을 보면서 자기평가가 높아진다. 그러나 이미 자신도 성공을 경험한 상태에서는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여러 차례 제공받으면, 그 사람과 자신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이는 자기평가를 낮춘다. 하향비교 자체는 자기평가를 낮추지 않지만, 실패를 경험하고 자존심이 손상된 상태에서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여러 차례 제공받으면 그 사람과 자신의 유사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이는 자기평가를 낮춘다. 반면에 개인주의 문화권, 적어도 미국의 대학생들에게서는 비교대상 자체는 자기평가를 더 높이거나 낮추지 않으며, 예측대로 실패를 경험하고 상향비교하면, 비교횟수가 적을 때보다 많을 때에 자기평가가 더 높았다.

한국인들에서 사회비교가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본 연구는 한국인들이 미국인들보다 사회비교 자체에도 관심이 많고, 그 중에서도 상향 비교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더해 한국인들은 미국인들보다 사회비교에 익숙하므로 비교의 횟수가 많아져도 인지적 부담이 높아지지 않으며 오히려 정교하게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선행연구(Stapel & Marx, 2006)에서도 정교하게 처리할수록 사회비교에서 대비가 일어났던 점에 근거하여 비교횟수가 높아질수록 상향비교 조건에서는 자기평가가 낮아지고, 하향비교 조건에서는 자기평가가 높아질 것으로 보았다. 물론 한국인들에게서 비교횟수의 효과를 정반대로 예측해볼 수도 있다. 즉, 사회비교에 익숙한 한국인들은 오히려 이를 간단하게 처리하여 정교화가 가능성이 낮고, 간편추론 과정(heuristic processing, Eagly & Chaiken, 1993)이 일어날 수도 있다.5) 그러나 현재 참가자들에게 제공된 비교정보는 같은 또래의 대학생에 대한 내용이며, 비교가 이루어지는 차원도 현재 참가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영역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참가자들의 개인적 관련성 지각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정교화가 가능성을 낮추기보다는 높였다고 추론함이 타당할 것이다.

5) 이 점에 대해 지적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본 연구의 가설은 특정한 조건에서만 지지되었다. 즉, 상향비교의 횟수가 높아질수록 자기평가가 낮아지는 점은 사회비교하기 이전에 성공을 경험했던 상황에서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설명하는 기제로써 사회비교에서 인지적 과정과 동기적 과정이 함께 작동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향비교의 횟수가 높아질 때에 이러한 사회비교 정보에 대해서 정교하게 처리하는 과정은 성공을 경험하여 자존심을 방어할 필요가 낮은 경우에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는 자존심을 방어하려는 동기도 강하게 작동하여서, 상향비교의 횟수가 높아져도 정교하게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동화효과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은 각 실험 조건에서 전반적 자기평가와 사회비교의 동기간 상관을 구한 결과와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도 있다.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상향비교 조건에서는 자기향상동기가, 하향비교 조건에서는 자기고양동기가 자기평가와 관련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지지되었다. 먼저 표 1을 보면, 상향비교하는 조건에서는 전체적으로 자기향상의 동기가 주로 작동하여 자기평가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성공을 경험하고 상향비교하는 상황에서는 자기향상의 동기가 높을수록 자기평가가 높지만, 실패를 경험하고 상향비교하는 상황에서는 자기향상의 동기가 낮을수록 자기평가가 높았다. 이는 성공을 경험한 조건에서는 자존심을 회복시켜야 할 필요성이 낮으므로,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이 좋은 역할모델로 기능하여서 자기를 개발하고 향상시키고 싶어 할수록 자기평가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실패를 경험한 조건에서는 자존심을 회복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으므로 자기향상동기는 오히려 자기평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하향비교하는 조건에서는 자기고양동기가 주로 작동하였다. 특히 성공을 경험하고 하향비교를 적게 하거나 실패를 경험하고 하향비교를 많이 하는 경우에 자기고양하려는 경향이 높을수록 자기평가도 높아졌다. 다만, 성공을 경험하고 하향비교를 많이 하게 되면, 자기향상의 동기도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미 성공을 경험한 사람이 자신보다 더 열등한 사람과 비교를 거듭할수록 자존심을 방어하고 싶은 욕구는 쉽게 충족되고, 이후로는 자기향상동기가 작동하게 되는데, 거듭되는

하향비교로는 자기향상의 동기가 충족되지 못하여서 하향비교의 횟수가 증가하여도 전반적 자기평가가 이에 상응하여 높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의 가설과 정반대의 결과를 얻은 조건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는 구체적으로 실패를 경험하고 하향비교하는 상황이다. 이 때에는 비교가 거듭될수록 하향비교를 정교하게 처리하고, 이로 인해서 대비효과가 일어나서 자기평가는 상승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오히려 자기평가가 낮아졌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양인들은 실패를 경험하면 오히려 자기향상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는 점을 보인 연구를 참고할 수 있겠다(Heine et al., 2001). 즉, 실패를 경험하고 하향비교하는 경우에 비교횟수가 많은 조건에서 자기향상동기의 평균값이 4.03으로 다른 동기들보다 더 높았는데(자기평가동기 3.27, 자기고양동기 2.34), 이 조건에서는 자기고양동기가 높을수록 자기를 좋게 보는데 도움이 되지만, 한국인들은 전체적으로 자기향상의 동기가 높은 수준에서 작동하고, 이로 인해서 반복되는 하향비교는 자기평가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미국인들에서 사회비교가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앞서 살펴본 한국인들과 달리 미국인들은 사회비교나 상향비교에 관심이 적을 것으로 보였다. 또한 실패를 경험할 때 미국인들이 성공이 예견되는 과제를 선호한 점에 근거하여(Heine et al., 2001), 동일한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미국인은 상향비교 대상과 자신을 동화시키기보다는 하향비교 대상과 대비하여 자기평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다(가설 2-1). 그러나 상향비교와 하향비교 조건에서 성공과 실패 경험은 자기평가에 유의한 차이를 초래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자기평가 값이 다소 높게 유지되었다. 이로부터 미국인들은 실패를 경험하고 상향비교할 때에는 동화를 보이고, 실패를 경험하고 하향비교할 때에는 대비를 보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실패를 경험하면 활발하게 자존심을 방어하고자 하는데, 평소에 한국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보이던 사회비교 대상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추론할 수 있겠다.

가설 2-1이 기각된 원인은 성공을 경험하고 상향비교하는 조건에서는 상대적으로 자기평가가 상승하지 않은 점

에 기인한다. 표 2를 보면, 이 조건에서는 대체로 사회비교의 동기가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자기향상동기의 역할을 기대한 바와 달리, 미국인들의 경우에 이미 성공을 경험하면,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과 비교하려는 동기도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이는 동화효과가 더 강하게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

본래 예상과는 달리 성공을 경험하고 상향비교를 많이 하는 조건에서 자기평가가 상당히 높았는데, 이 조건에서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얻은 결과와는 달리 사회비교동기가 모두 자기평가와 부적상관을 보였다. 즉, 자기향상동기나 자기평가동기가 낮을수록 오히려 자기평가에서 도움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와 동일하게 실패를 경험한 조건에서는 자존심을 회복시켜야할 필요성이 높으므로 자기향상동기나 자기평가동기는 오히려 자기평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점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인들보다 미국인들이 이 조건에서 자기향상하려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서(자기향상동기, 자기평가동기, 자기고양동기 순으로 한국대학생, 3.94, 2.87, 1.88, 미국대학생 3.58, 3.27, 2.73), 자기평가를 높게 유지하는 데 이득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본 연구의 가정과는 대치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실패하고 나서 상향비교하면 한국인들에 비해서 미국인들이 동화를 덜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미국인들은 동화나 대비를 떠나서 대체로 비교하려하지 않고, 이로 인해서 자기평가를 높게 유지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비교동기가 자기평가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본 연구의 결과로는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 먼저 부가측정치로 연구의 가장 후반부에 참가자들이 응답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조작한 사회비교대상으로 사회비교가 촉발된 정도를 반영하는지, 사회비교를 통해 해결되지 못하고 남은 동기를 반영하는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⁶⁾ 다만, 한국과 미국대학생들에게서 나타난 전반적인 결과만 기술할 수 있겠다. 먼저 한국의 대학생들은 사회비교 상황에서 다양한 사회비교동기가 작동하고 자기를 평가하는데 관련된다. 또한 선행연구나 본 연구의 예측과 일관되게, 상향비교하는 조건에서는 자기향상동기가, 하향비교하는 조건에서는 자기고양동기가 자기평가와

유의하게 관련된다. 반면에 미국의 대학생들은 이미 사회비교가 일어난 상황에서 사회비교의 동기들은 그 수준이 낮아지며, 자기평가와 별 상관이 없었다.

연구의 제한점과 장래 연구의 과제

본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주종속치로 전반적 자기평가를 다루었다. 이는 과제-특수적인 측정치가 아니어서 자기를 고양하거나 방어하기 좋다는 점에서 선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방어하기 좋은 상황에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실패 경험을 통해서 자존심을 회복시키려는 마음이 유발되어 동기적 과정이 작동할 것으로 보았지만, 선행연구들 가운데 실패경험이 정교하게 정보처리하도록 만들어서 대비효과를 일으키는 점을 보인 결과(Mussweiler et al., 2004)도 있다. 물론 이 연구는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비교대상의 효과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그림과 같은 중립적 자극들간 차이점을 찾는 데 더 초점화되는 점만을 입증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자존심이 높은 대학생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이후 정보를 정교하게 처리하려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셋째, 이미 언급한대로 미국대학생들은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상향비교할 때에 비교 자체로부터 철수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넷째, 여러 선행연구들(Herr, 1986; Stapel & Koomen, 2000; Mussweiler et al., 2004)에서는 비교대상의 극단성이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근거하면, 본 연구에서 각 차원별로 비교대상을 제시할 때 극단성이 달라져서 자기평가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상향비교 및 하향비교 대상을 제시할 때에 네 차원(학업능력, 대인관계, 예술적감수성, 운동능력의 순서로 상향비교의 경우, 한국, 6.01, 5.88, 5.94, 5.99, 미국, 5.95, 6.00, 5.97, 5.99; 하향비교의 경우, 한국, 2.10, 2.28, 2.12, 2.35, 미국, 2.21, 2.01, 2.37, 2.16) 별로 비교대상을 평가한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다만 상향비교의 경우 7점 척도에서 6점 정도로 매우 높게 평가하였고, 하향비교의 경우 2점 정도로 매우 낮게 평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비교대상이 극단적으로 우수하거나 열

6) 이 점에 대해 지적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등한 조건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미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비교횟수를 조작점검한 결과를 보면, 하향비교 조건에서는 본 연구의 의도와 달리 비교횟수가 많을 때 오히려 비교대상으로 인해 덜 영향받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미국인들이 실패를 경험한 조건에서 비교횟수의 효과를 해석할 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인들이 비교횟수의 조작점검 문항에 응답한 결과를 분석했을 때, 그 평균값이 모두 4점이상이어서 조작점검에서 유의한 주효과는 나타났지만, 그 조작의 강도가 상당히 약했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성공과 실패 경험을 조작할 때에 한국인과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백분위가 달랐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미국인들에게서 얻은 자료는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성공과 덜 저조한 실패 조건에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인들에게서 미국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백분위로 성공을 조작하였는데, 조작점검 결과를 통해 이들이 자신이 그다지 성공적이었다고 지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패조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성공한 조건에서 얻은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겠다.

일곱째, 많은 비교문화연구에 대한 비판에서 드러나듯이, 한국의 특정 대학의 학생들과 미국의 특정 대학의 학생들 간의 차이를 문화 차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⁷⁾ 물론, 이 두 대학의 대학생들이 보인 차이 중의 일부는 문화 차이를 반영할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가 문화 차이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문화 차이 중의 일부분만을 설명한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

장래 연구의 과제

이상의 제한점과 앞서 설명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종합하여 장래 연구 과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자기평가를 전반적인 측정치와 과제-특수적인 측정치로 모두 측정하여 이 둘의 차이를 확인하면, 전반적 자기평가에서 실제로 자존심을 방어하려는 노력이 나타났는지 알아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가장한대로 수행의 결과나 비교의 횟수가 각각 동기적 과정과 인지적 과정을 촉발시켰는지 직접 검증하여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동화나 대비를

통한 자기평가 이외에 비교 자체에 관심이 저하되거나 사회비교로부터 자신을 철수시킨 정도를 직접 측정하여 앞서 제안한 대안설명 가능성의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비교대상의 우월함이나 열등함이 다소 극단적으로 조작된 편인데, 이는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대비를 일으키는 변인이다. 따라서 덜 극단적으로 조작하여 동화가 더 쉽게 일어나는 조건에서 사회비교가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수도 있겠다.

참 고 문 헌

- 한덕웅, 장은영 (2003). 사회비교가 분노경험, 주관안녕 및 건강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85-112.
- 장은영, 한덕웅 (2004). 사회비교의 목표, 대상 및 결과가 비교대상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2), 65-89.
- Herr, P. M. (1986). Consequences of priming: Judgment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06-1115.
- Brown, J. D., Novick, N. J., Lord, K. A., & Richards, J. M. (1992). When Gulliver travels: Social context, psychological closeness, and self-apprais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717-727.
- Eagly, A. H., & Chaiken, S. (1993). *The psychology of attitudes*. Fort Worth, TX: Harcourt Brace Jovanovich.
- Heine, S. J., & Lehman, D. R. (1999). Culture, self-discrepancies, and self-satisfa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915-925.
- Fabrigar, L. R., Priester, J. R., Petty, R. E., & Wegener, D. T. (1998). The impact of attitude accessibility on elaboration of persuasive messag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339-352.
- Heine, S. J., Kitayama, S., Lehman, D. R., Takata, T., Ide, E., Lueng, C., & Matsumoto, H. (2001). Divergent consequences of success and failure in Japan and North America: An investigation of self-improving motivations and malleable selves.

7) 이 점에 대해 지적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599-615.
- Hetts, J. J., Sakuma, M., & Pelham, B. W. (1999). Two roads to positive regard : Implicit and explicit self-evaluation and cultur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5, 512-559.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 Sage.
- Kitayama, S., Markus, H. R., Matsumoto, H., & Norasakkunkit, V. (1997).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 Self-enhanc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self-criticism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245-1267.
- Kruglanski, W. A., & Maysel, O. (1990). Classic and current social comparison research : Expanding the perspective. *Psychological Bulletin*, 108, 195-208.
- Lockwood, P., & Kunda, Z. (1997). Superstars and me : Predicting the impact of role models on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93-103.
- Mussweiler, T. (2001). Focus of comparison as a determinant of assimilation versus contrast in social comparis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38-47.
- Mussweiler, T. (2003). "Everything is relative". Comparison processes in social judgment.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 719-733.
- Mussweiler, T., & Bodenhausen, G. V. (2002). I know you are but what am I? Self-evaluative consequences of judging ingroup and outgroup memb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19-32.
- Mussweiler, T., Rüter, K., & Epstude, K. (2004). The man who wasn't there. Subliminal social standards influence self-evalu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 689-696.
- Mussweiler, T., & Strack, F. (1999). Hypothesis-consistent testing and semantic priming in the anchoring paradigm : A selective accessibility mode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5, 136-164.
- Mussweiler, T., & Strack, F. (2000). Numeric judgment under uncertainty : The role of knowledge in anchor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6, 495-518.
- Pelham, B. W., & Wachsmuth, J. O. (1995). The waxing and waning of the social self : Assimilation and contrast in social comparis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825-838.
- Petty, R. E., & Cacioppo, J. T. (1986).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 Central and peripheral routes to attitude change*. New York : Springer-Verlag.
- Schwinghammer, S. A., Stapel, D. A., & Blanton, H. (2006). Different selves have different effects : Self-activation and defensive social comparis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 27-39.
- Stapel, D. A., & Blanton, H. (2004). From seeing to believing : Subliminal social comparisons affect implicit and explicit self-eval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 468-481.
- Stapel, D. A., & Koomen, W. (2000). Distinctness of others and malleability of selves : Their impact on social comparison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1068-1087.
- Stapel, D. A., & Koomen, W. (2001). I, we, and the effects of others on me : How self-construal level moderates social comparison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766-781.
- Stapel, D. A., & Marx, D. M. (2007). Distinctiveness is key : How different types of self-other similarity moderate social comparison effec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 439-448.
- Taylor, S. E., Wayment, H. A., & Carillo, M. (1996). Social comparison, self-regulation, and motivation. In R. M. Sorrentino & E. T. Higgins(Eds.), *Motivation*

- & *Cognition*(pp.3-27). New York : Guilford Press.
- Trampe, D., Stapel, D. A., & Siero, F. W. (2007). On models and vases : Body dissatisfaction and proneness to social comparison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 106-118.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e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White, K., & Lehman, D. R. (2005). Culture and social comparison seeking : The role of self-moti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 232-242.

Does Superior or Inferior Others Influence Self-evaluation? : Focusing on Korean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Eun-Young Jang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self-evaluation is influenced by superior or inferior others. In addition, on the basis of the perspective that self-improvement motive is dominant among people from collectivistic cultures and self-enhancement motive is dominant among people from individualistic cultures, the role of cultural difference was also explored. For this purpose, with the design of 2 (success / failure experience) × 2 (upward / downward comparison) × 2 (high / low frequency of comparison), the effects of those variables on global self-evaluation were tested among Korean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Koreans' self-evaluation after upward comparison was not affected by experiences of success and failure. Meanwhile, self-evaluation after downward comparison were lowered by experiencing failure. In addition, their self-evaluation got lowered by frequent upward comparison after experiencing success and by frequent downward comparison after experiencing failure. American students' self-evaluation after downward comparison was not affected by the frequency of comparison. However, self-evaluation after upward comparison increased through frequent comparisons. Additionally, global self-evaluation got higher by the frequency of upward comparison after experiencing failure. Finally,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in line with previous research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Keywords: Social comparison; Self-evaluation; Upward comparison; Downward comparison; Cognitive perspective; Motivational perspective; Social comparison motives; Cross-cultural perspective

1차원고 접수일 : 2007년 12월 13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8년 2월 2일
게재 확정일 : 2008년 2월 9일